

환경을 지키는 생태마을

도심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연 마을인 예래동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해안절경을 간직한 마을이다. 청정환경에서만 자라는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자연을 지키는 생태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예래로 | 서귀포시 색달동 2105-7 ~ 서귀포시 하예동 1829-4(약 4.7km)

열리로 | 서귀포시 상예동 1443-13 ~ 서귀포시 하예동 1152(약 1.7km)

상예로 | 서귀포시 상예동 1247-1 ~ 안덕면 상천리 175(약 6.5km)

우남로 | 서귀포시 상예동 1718-6 ~ 서귀포시 상예동 1753-5(약 0.2km)

하예로 | 서귀포시 하예동 222-1 ~ 서귀포시 하예동 1-1(약 0.7km)

논짓물로 | 서귀포시 하예동 532 ~ 서귀포시 하예동 378-1(약 0.8km)

예래해안로 | 서귀포시 하예동 1810-7 ~ 서귀포시 상예동 592-4(약 5.5km)

소보리당로 | 서귀포시 하예동 248-3 ~ 서귀포시 상예동 3592-3(약 2.3km)

예래로/열리로 | 반딧불이 생태마을



예래생태공원

예래동의 중심도로인 **예래로**는 대평리의 난드르로의 동쪽 끝에서 시작해 예래동의 마을 안을 동서로 가로지른다. 예래동은 고려시대부터 예래현(猊來縣)으로 불리기 시작한 마을이다. 마을 안을 지나면 또 다른 길로 **열리로**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예래동을 ‘열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래서 옛 지명을 따서 **열리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예래동은 반딧불이 생태마을로 마을을 홍보하고 있다. 2002년 예래천에 반딧불이가 사는 것이 확인되면서 예래천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반딧불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곤충이다. 환경오염에 민감해 청정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예래동이 오염이 되지 않은 청정 마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후 예래동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될 정도로 자연을 지키는 생태마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예로/우남로 | 대왕수와 우남동

상예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길이 **상예로**이다. 이 길은 예래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산록남로까지 이어진다. 예래동은 중산간 지역을 포함하는 상예동과 남쪽 해안가 마을인 하예동으로 나뉜다. 예래동은 마을 곳곳에 용천수가 있어서 물이 풍부한 마을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수전동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상예동에서 나는 물에는 대왕수와 소왕수가 대표적이다. 대왕수는 다른 곳보다 물이 많이 나고, 일년 내내 끊기지 않고 물이 흐른다고 해서 큰이 물이라 불렸다. 이 물은 주로 여성들이 사용해서 여자물이라고 했다고도 전한다. 대왕수는 수량이 풍부해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부대가 인근에 주둔하며 이 물을 이용했고, 6·25 때는 육군훈련소의 군부대가 주둔해 이 물을 이용했었다고 한다. 지금은 상수도의 수원지로 많은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왕수가 여자들의 물이라면 대왕수 인근에 있는 소왕수는 남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이었다. 대왕수보다 작다는 의미인 소왕수는 남자들이 몸을 씻거나 말이나 소를 먹이는 물이기도 했고, 농업용수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상예로와 일주서로가 만나는 인근에는 **우남로**가 있다. 이 길은 상예동 북쪽에 있는 우보

오름 아래 형성된 마을인 우남동의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1975년에 취락구조 사업에 의해 생겨난 마을이라고 한다. 우보오름은 형세가 소가 엎드렸다가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우보악(牛步岳)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유래는 알지 못한다. 예전에 이 부근에는 고려시대 원나라의 말을 기르는 목장이 있었다고 전한다.

하예로 / 논짓물로 | 예래동의 용천수

하예로는 예래로에서 시작해 예래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상예동처럼 하예동에도 여러 용천수들이 있다. 예래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차기물은 상예동의 대왕수 다음으로 물이 많이 나고 맛이 좋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식수로 이용되었는데 물통이 구분되어 있어 마시는 물을 뜰 때, 채소를 씻을 때, 목욕을 할 때, 빨래를 할 때 각각 다른 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논짓물로는 예래로에서 논짓물로 향하는 길을 의미하는 길이다. 예래동을 대표하는 용천수인 논짓물은 물이 나오는 곳이 바로 바다와 경계를 이루는 곳이어서 예전에는 솟아난 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 버렸다. 사람들은 농사에도 사용할 수 없는 물이라고 해서 ‘쓸데 없는 물, 노는 물’이라는 의미로 논짓물이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은 논짓물 주변을 정비해서 독특한 야외 담수욕장을 만들었다. 물이 흘러 나오는 곳에 일정한 독을 설치해서 담수가 모이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독을 경계로 용천수와 바다가 구분되는 절묘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 남탕과 여탕이 따로 마련된 노천탕도 있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여름 논짓물 해변축제를 열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논짓물을 알리고 있다.



논짓물

예래해안로 | 진황등대

예래해안로는 예래동의 해안가를 따라 이어진 길이다. 예래동의 예전 이름을 따서 열리 해안길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예래해안로**를 따라 하례포구에 다다르면 하얀 등

대를 만난다. 이 등대는 하례리 출신인 강진황 씨가 고향에 기증한 등대라고 한다. 강진황 씨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을 당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출가물질을 온 사계리 출신 김춘자 씨를 만나 결혼을 했다. 이후 부부는 열심히 사업에 매진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강진황 씨와 김춘자 씨는 자신들의 고향인 하예동과 사계리에 등대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비를 털어 하예동에는 하얀 등대를 사계리에는 빨간 등대를 세워주었다고 한다. 타향에서도 고향을 잊지 않은 부부의 애향심이 담겨 있는 등대이다.

등대를 지나 바위들이 연이어 솟아있는 곳에 마치 문처럼 뚫려 있는 곳을 볼 수 있다. 이곳은 하늘을 오르던 용이 지나간 문이라고 해서 용문덕이라 부른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해지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었다고 전한다.

소보리당로 | 여우잡은 김호장

하예동에서 상예동까지 이르는 도로인 **소보리당로**는 옛 지명인 소보리당이 반영된 이름이다. 소보리당은 지형이 소의 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소뿌리동산’으로 부르다가, 길 인근에 당이 있어 ‘소보리당’으로 불렸다고 한다. 소보리당과 관련해 여우를 잡았던 김호장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 김호장이란 사람이 말을 타고 소보리당을 지나가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나타나 말을 함께 타고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김호장은 이 여자가 분명 여우가 변신을 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이 여자가 타는 것을 싫어하니 자신의 뒤에 타라고 한 후 자신의 등에 여자를 짊어 묶었다. 그리고서는 말을 힘껏 달렸다. 말 위에서 꼼짝 못하게 된 여자는 말에서 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장은 내려주지 않고 자신의 집에 도착해 개들에게 여자를 던졌더니 여자가 여우로 변해 개들에게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비슷한 이야기가 주인공만 달리해서 애월읍에도 전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타고 제주 전역에 전해지던 이야기이다.